

한국발명진흥회, 독도와 함께 배우는 스토리텔링형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개최



<사진설명 : 발명인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사진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는 오는 8월 3일(월)부터 8월 20일(목)까지 지식재산처 전시관인 발명인의 전당(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전 접수된 대전 소재 초등학교 단체 총 4팀을 대상으로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2차 발명창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발명과 미래 기술로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지식재산 현장 체험'과 '스토리텔링 발명 실습'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심판원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등 지식재산 현장을 견학하며 지식재산의 기초와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어지는 발명 교육에서는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를 특수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사진설명 : ▲ 어린이 발명창의교실의 독도 등대 만들기 교육 결과물>

발명창의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독도를 소재로 한 문제 해결형 발명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외딴 섬의 야간 해양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성 테이프(전기 회로)와 풍력발전 원리를 각각 적용한 두 가지 방식의 '독도 등대'를 직접 만들며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활용을 다각도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통해 미래 기술을 체험한다.

이는 독도가 가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며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마련된 것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발명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을 만든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공간의 최전선”이라며 “발명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힘이고, 독도는 우리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생생한 지식재산 현장을 경험하고, 스스로 독도의 문제를 발명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독도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발명하는 정신을 함께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